

# 凌叔華 소설에 나타난 상징성 읽기\*

— <繡枕> <茶會> <中秋晚>을 중심으로

李熙暎\*\*

## <목 차>

1. 들어가며
2. 繡枕 - 물화
3. 閨房 - 소외
4. 團鴨 - 불안
5. 나오며

## 1. 들어가며

5·4시기 여성의 발견은 인간의 발견이 구체화되어 실현된 성과이며, 그것의 이론적 출발점은 인간의 가치와 개성의 독립, 인격의 평등을 존중하는 인본주의사상이다. 이 시기 여성을 시선의 중심에 놓고 그들의 삶을 주시하는 여성작가들은 기존의 봉건적 혼인제도에 대한 철저한 거부, 개성해방, 자유연애의 실천을 통하여 자아정체성을 찾아간다. 특히 자유연애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전통을 부정하고 부권을 해체하며 여성해방의식을 논한다. 이에 비해 凌叔華는 5·4시기 독특한 풍격을 지닌 여성작가이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BK21 고려대학교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高麗大 中文科 博士課程.

凌叔華의 소설은 ……馮沅君의 대담함, 솔직함과 다르다. 대체로 신중하고도 적당한 정도에서 구가정 내의 유순한 여성을 묘사했다. 비록 중간에 궤도를 벗어난 작품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文酒之風의 영향을 우연히 받은 것이었으며, 결국 그녀는 자신의 풍격을 회복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馮沅君、黎棉明、川島、汪靜之가 묘사했던 것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인물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좋은 것이며, 이는 역시 세대의 한 일면이고, 고귀한 가문의 정신이다.<sup>1)</sup>

凌叔華 작품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은 新舊역사가 교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인간적인 투쟁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가부장적 의식을 내면화하고 인내와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 타자화<sup>2)</sup>된 인물이다. 凌叔華 작품을 통한 미적 체험은 타자화된 여성들의 내면 심리에 바탕을 두면서 그들의 내부세계에 축적되어 있는 의미들을 상징적인 감각이나 이미지로 재생산한다는 데에 있다. 이때 대상의 본질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해주는 동시에 각인의 효과를 주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상징이다.

상징은 사용된 사물들을 연상을 통하여 그 사물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다른 의미의 즉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상징은 상징화되는 사물들을 양식화(stylization)함으로써 그 자체의 목적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상징들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연상되는 관념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시공간적 제약을 받기도 한다. 상징의 중요한 효능은 의문의 여지없이 그것이 자신의

1) 凌叔華小說 ……恰和馮沅君的大胆、敢言不同，大抵很謹慎的，適可而止的描寫了舊家庭中的婉順的女性。即使間有出軌之作，那是爲了偶受着文酒之風的吹拂，終於也恢復了她的故道了。這是好的一使我們看見和馮沅君、黎棉明、川島、汪靜之所描寫的絕不相同的人物，也就是世態的一角，高門巨族的精魂。魯迅，《中國新文學大系·小說二集序》，上海文藝出版社，1980，11쪽.

2) 어떤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자신의 경험과 시선으로 규정하고 그 다른 존재는 상대방이 내린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그 규정에 맞추어 가는 것을 '타자화'라고 한다. 이런 타자화 현상이 일어나는 관계는 예외 없이 권력이 개입되고, 권력이 있는 쪽이 '주체', 없는 쪽이 '타자'가 된다. 이때는 주체가 한 체험이 권위를 가지며, 그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그리고 타자는 주체의 체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식체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스스로를 소외시키게 된다. 한번 이런 틀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모든 다른 제도에서와 같이 거대한 복합체로서 굴러가게 됨으로, 타자화의 구조는 여간해서 바꾸기가 힘들어진다. 조세핀 도노번, 김익두·이월영 역, 《페미니즘 이론》, 문예출판사, 1997, 224쪽.

상태를 벗어나려는 모든 인간의 신비한 욕구의 구체화된 반영이라는 데에 있다. 또한 상징은 하나의 관념체계나 논리만으로 해독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각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은 어떤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분석학에서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특히, 문학에서 사용되는 상징은 관점에 따라 여러 유형별로 나눌 수 있지만 환기력의 범위에 따라 사적 또는 개인적 상징과 관습적 또는 대중적 상징 그리고 원형적 상징의 셋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sup>4)</sup>

1925년에 발표한 凌叔華의 단편소설<sup>5)</sup> <繡枕>(《現代評論》 1卷15期), <茶會>(《現代評論》 1卷20期), <中秋晚>(《晨報副刊》 10月1日)에서는 모두 가정 내 구석진 삶 한 곳에 놓인 여성의 생활방식, 인간관계를 통하여 성차별이 초래하는 불평등한 사회현실, 독특한 심리적 체험과 인간의 본성 측면의 의식세계를 의미심장하게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작가가 보편적 사물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의미부여를 한 개인적 상징을 통하여 내포하고 있는 타자화된 여성의 심리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김정진, 《상징으로 소설 읽기》, 박이정, 2002, 17쪽 참조.

4) 개인적 상징(personal symbol)은 어떤 하나의 작품 속에만 있는 단일한 상징이나 어떤 시인이 자기의 여러 작품에서 특수한 의미로 즐겨 사용하는 상징을 말하며, 대중적 상징(public symbol)은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상징(universal symbol)을 말한다. 인습적 상징, 제도적 상징, 자연적 상징, 문학적 전통의 상징이라 불리는 것들은 모두 대중적 상징의 범위에 속한다. 원형(archetype)은 역사나 문학, 종교, 풍습 등에서 수없이 되풀이된 이미지나 모티프나 테마이다. 동시에 인류에게 꼭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반복성과 동일성이 원형적 상징(archetypal symbol)의 속성이다.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1, 160-163쪽 참조.

5) <繡枕>에서의 大小姐는 부친의 뜻에 따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등받이에 수를 놓아 혼인 이야기가 오가는 집에 보내지만, 2년 후 자신의 정성이 더럽혀진 채 되돌아온 등받이를 보고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한다. <吃茶>에서의 芳影은 친구의 오빠와 교류하게 되면서 유학생인 그의 세련되고 호의적인 매너에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갖게 되지만, 결국 그녀에게 보내온 그의 결혼 청첩장을 보면서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中秋晚>에서의 敬仁太太는 중추절 식사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불길한 조짐이거나 명절에 죽은 사람에게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거나 화병이 깨지면 길조가 아니라는 등의 봉건적 미신사상을 신봉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화목했던 부부사이의 점점 갈등이 깊어져 결혼생활의 비극을 초래한다. 김은희, <凌叔華小說 研究>, 《中國現代文學》 11호, 1998, 327쪽 참조.

## 2. 繡枕-물화

남자는 밖에 거처하고 여자는 안에 거처하며, 집안의 말이 밖에 나가지 않게 하고, 밖의 말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한다(男子居外, 女子居內, 內言不出, 外言不入).<sup>6)</sup> 이와 같이 부권사회에서는 남성주의적인 시각에서 여성에 관한 모든 담론들을 재구성하여 여성의 가치, 형상과 행위, 문화적 성별의 모든 함의를 규정한다. 여성은 결국 자연에 순응하며 침묵하는 타자의 존재로서 여성에 관한 문화적 함의를 받아들이고 남성제도의 요구에 완전하게 부합하도록 개조된다. 그 결과 여성은 자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여자를 정의하는 대로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즉, 한 인간이 여성이 된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sup>7)</sup>

남성의 입장에서 그들이 규정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소유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자질을 가진 하나의 타자로서 경험되는 전형적인 여성은 <繡枕>의 大小姐이다. 大小姐는 작품에서 수농기에 과도하게 '몰입'함으로써 결핍된 부분을 채우려는 강한 욕구를 드러내는데, 여기에서 '수농기'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선택권이 없는 혼인에 대하여 그녀 자신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행위이다. 즉, 大小姐는 선택권자의 시선에 그녀의 가치를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을 사물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현실감을 갖고 욕구를 연기하는 현실원칙(reality principle)을 충실히 따르며, 이에 반응함으로써 현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sup>8)</sup>의 한 형태인 보상(compensation)심리이기도 하다.

6) 《禮記·內側》

7) 시몬 드 보브와르, 조홍식 역, 《제2의 성》, 을유문화사, 1997, 313쪽 참조.

8) 방어기제(적응기제)라는 용어는 프로이트의 논문 《방어의 신경정신학》(1984)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타협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정신적 과

다시 말하면, 환경의 요청에 부응하여 스스로의 욕망을 조절함으로써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 즉, 욕구와 가능성 간에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sup>9)</sup> 그 가치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大小姐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기댈 수 있는 절대적인 의지처가 되는 것이다.

大小姐는 고개를 숙인 채 등받이 수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마침 지독히도 무더운 날씨인지라 강아지는 책상 아래에 드러누워 혀를 길게 내밀어 숨을 헐떡이고 파리들은 열기로 가득한 유리창을 맴돌고 있을 뿐이다.<sup>10)</sup>

그녀는 새의 관모를 수놓을 때에 꼬박 세 번이나 뜯었다가 다시 수놓았다. 한 번은 연한 노랑색 실이 땀에 더럽혀진 것을 수를 다 놓고 나서야 발견해서였고, 또 한 번은 저녁이라서 색을 잘못 알고 푸른색 실을 잘못 배합해서였다. 마지막 한 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연꽃잎의 연분홍색 실은 손을 씻었는데도 감히 만지지를 못하고, 손에 분말 파우더로 문지른 다음에야 다시 수놓아야 했다. ……연꽃의 아주 큰 이파리는 훨씬 더 수놓기가 어려웠다. 같은 녹색으로만 수놓으면 너무 단조롭게 보일까봐 그녀는 장장 열두 가지의 녹색실을 배합했다.<sup>11)</sup>

繡枕은 개인의 욕망이나 쾌락과는 상관없이 봉건적 결혼제도에 의해 유교의 이념이나 가족제도의 도구화, 物化된 여성을 상징한다. 大小姐는 감정과 욕망을 가진 인간이기보다는 남성사회에 의해 인정을 받고 선택되어야 비로소 가치를 지니게 되는 物化(Verdinglichung)된 여성이다. 루카치(Georg Lukacs,

정을 집합적으로 일컫는 정신분석학적 용어이다. 이 과정들은 보통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며, 이때의 타협안들은 대체로 자기비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자신의 본능적 욕구나 감정을 감추는 성격을 띤다. 주된 방어기제에는 억압, 보상, 투사, 합리화, 퇴행, 승화, 부정 등이 있다. 보상이란 실제적인 노력이든 상상으로 하는 노력이든 간에 자신의 결함을 메우려는 비의식적인 노력을 말한다. 즉, 심리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는 사람이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발전시키는 것과 같은 보상행위이다.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이유, 2006, 180쪽 참조.

9) 이훈구 외, 《인간 행동의 이해》, 법지사, 2006, 389쪽.

10) 大小姐正在低頭繡一個靠墊。此時天氣悶熱，小巴狗只有躺在桌底伸出舌頭喘氣的分兒，蒼蠅熱昏昏的滿玻璃上打轉。〈繡枕〉(《現代評論》 1卷15期)。

11) 她做那烏冠子會拆了又繡，足足三次，一次是汗污了嫩黃的線，繡完才發現；一次是配錯了石綠的線，晚上認錯了色；末一次記不清了。那荷花瓣上的嫩粉色的線她洗完手都不敢拿，還得用爽身粉擦手，再繡。……荷葉太大塊，更難繡，用一樣綠色太板滯，足足配了十二色綠線。〈繡枕〉(《現代評論》 1卷15期)。

1885~1971)는 양적으로 평가된 대상뿐만 아니라 도구화된 동료인간과 욕구들까지 모두 物化라고 부른다.<sup>12)</sup>

어머니, 이 등받이를 白총장님 댁에 보내기만 하면 사람들이 보고서는 얼마나 많이 와서 혼담을 꺼낼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어요. 문지방도 비좁아서 터질 거예요. ....뜯자하니 白총장님 둘째 도련님은 스물이 넘었는데도 아직 적당한 혼처를 찾지 못했다고 해요. 아, 주인어른의 뜻을 알겠어요. 지난번 관상쟁이가 마님께 올해 아가씨 사주에 흉난성이 있다고 말했다는데.....<sup>13)</sup>

이때, 여성의 가치는 쉽게 왜곡되고 부정될 수 있다. 繡枕은 바로 그러한 大小姐의 운명 그 자체이다. 凌叔華는 작품에서 白총장의 둘째 아들을 등장시키거나,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술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는 부권사회의 상품교환에 있어 선택권자를 나타내는 상징적 기호<sup>14)</sup>이며, 그러한 절대적인 권위성은 大小姐의 피동적인 운명에서 응축되어 표현된다.

어떤 사람이 왕씨네 아주머니 주인나리께 보내온 첫날 응접실 의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날 밤 술에 취한 손님이 거기에다 토해버려서 하나는 더러워졌고요. 나머지 하나는 마작하던 사람이 밀쳐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발갈개로 사용하는 바람에 그렇게 보기 좋던 것이 온통 사람들 흙 발자국이에요. 주인 아드님이 그걸 보시고는 왕씨네 아주머니한테 가져가라고 하셨대요.<sup>15)</sup>

凌叔華는 작가 특유의 감각으로 여성생존의 본질적 요소를 상징적으로 표현

12) 악셀호네트, 강병호 역, 《物化: 認定の 이론적 탐구》, 나남출판, 2006, 26쪽.

13) 哼, 這一封靠枕兒送到白總長那里, 大家看了, 別提有多少人來說親呢。門也得擠破了。.....聽說白總長的二少爺二十多歲還沒找着合適親事。唔, 我懂得老爺的意思了, 上回算命的告訴太太今年你有紅臉星照命主.....。<繡枕> (《現代評論》 1卷15期)。

14) 도상적 기호(iconic sign)가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고, 지표적 기호(indexical sign)가 인과성에 근거하여 의미작용을 일으키는 기호라면, 상징적 기호(symbolic sign)는 자의성이 그 특징이다. 상징적 기호와 그 지시대상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이나 인과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자의적 관행의 산물이다. 전경갑·오창호, 《문화적 인간 인간적 문화》, 푸른사상, 2003, 47-48쪽 참조.

15) 頭一天, 人家送給她們老爺, 就放在客廳的椅子上, 當晚便被吃醉了的客人土臟了一大片; 另一個給打牌的人擠掉在地上, 便有人拿來當作腳踏墊子用, 好好的緞地子, 滿是泥脚印。老爺看見就王二嫂撿了去。<繡枕> (《現代評論》 1卷15期)。

한다. 술 취한 사람에 의해 함부로 짓밟혀지는 수놓은 등반이의 불행한 운명처럼 大小姐의 운명 역시 처절하다. 특히 작품에서 부친은 여성 운명의 억압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남권중심사회를 대표한다. 부친은 봉건사회에서 상품교환의 주체이며, 物化의 제조자이다. 그는 눈앞의 대상들을 잠재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물건으로만 지각하고 있다.

大小姐는 부친에게 있어 세력가에게 기대어 힘을 얻기 위한 증정품일 뿐이며, 그로 인해 이익을 창출하는 물건인 것이다. 가부장제적인 질서에서 상품교환의 주체인 남성들은 그의 환경세계에서 혹은 자기 자신의 인격에서 경제적으로 가치증식이 가능한 요소로 지각하는 모든 현상들, 즉 대상이든, 다른 인격체든 혹은 자신의 능력이나 감정이든 상관없이, 그것들은 경제적 거래에서 사용가능성이란 관점 아래에서 고려되자마자 물건 같은 객체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sup>16)</sup>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大小姐는 우연한 기회에 수놓은 등반이의 참담한 운명을 알게 된다.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봉건사회에서의 어떤 운명적인 힘 앞에서 大小姐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즉, 여성의 현재의 신분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문명 속에 완강히 살아 남아있는 가장 오랜 전통이다.<sup>17)</sup>

오로지 이 두 수놓은 천조각에 넋을 잃어 小妞兒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녀는 小妞兒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저어 대답을 대신할 뿐이다.<sup>18)</sup>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그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자기의 주체를 인식하고 주장할 환경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여성들에게 있어 인간 존재로서의 고독, 소외감, 불안은 가장 절실한 문제로 다가온다.

16) 악셀호네트, 앞의 책, 27쪽 참조.

17) 시몬 드 보브아르, 앞의 책, 212쪽 참조.

18) 大小姐只管對着這兩塊繡花片子出神, 小妞兒末了說的話, 一句都聽不清了。……大小姐沒有聽見小妞兒問的是什麼, 只能搖了搖頭算答復了。〈繡枕〉(《現代評論》 1卷15期)。

### 3. 閨房-소외

집은 세계 안의 우리들의 구석이다. 그리고 집에 있는 구석, 방 안의 벽 구석, 우리들이 스스로를 응집시켜 웅크리고 들어앉고 싶은 구석진 공간은 어떤 것이나 고독, 소외, 폐쇄적인 방의 배아, 집의 배아가 된다. 구석은 우리들에게 존재의 최초의 가치인 부동성을 확보해주는 은신처이며, 그것은 나의 부동성이 자리잡을 수 있는 확실한 장소, 가까운 장소이기 때문이다.<sup>19)</sup> 또한 세계와의 부조화를 잠재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자기 동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개체의 실존적 의미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閨房 안 芳影의 모습 속에는 역사적으로 조건 지워지고 무의식의 수준으로까지 뿌리내리고 있는 봉건적 가부장제가 명명해 놓은 겸양, 소양, 수동성, 인내 등의 ‘여성성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농후하다.

그녀는 말없이 거울 앞에서 닳을 잃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와 그림의 경지가 그녀의 마음과 눈앞으로 펼쳐진다.<sup>20)</sup>

.....芳影 언니가 밤에 통소를 불기 시작하면 이웃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자기를 원치 않는다니까. ....시와 사도 잘 지을 뿐만 아니라, 글자도 매우 아름답게 써.<sup>21)</sup>

내가 무슨 詞와 曲을 이해한다고 그래, 정말 글씨도 잘 쓰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않아서, (통소) 연주도 잘 못해.<sup>22)</sup>

19) 가스통 바슐라르, 광광수 역,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255-257쪽 참조.

20) 她默默地對這鏡子出神, .....一時詩情畫意都奔向她的心頭和眼底。〈茶會〉(《現代評論》 1卷 20期)。

21) .....芳影姐姐晚上吹起簫來, 鄰居的人都不願意睡呢。.....不但詩詞作的很好, 字還寫得很美呢。〈茶會〉(《現代評論》 1卷20期)。

22) 我哪里懂得什麼詞曲, 我實在不會寫字, 學了不多, 吹的又不好。〈茶會〉(《現代評論》 1卷 20期)。

구석은 많은 측면에 있어서 삶을 제한하고, 삶을 숨기는 것이다. 이때, 구석은 세계의 부정이다.<sup>23)</sup> <茶會>의 芳影이 구석에 몸을 피하고 있으면서 평화로운 가운데 있다는 의식이 형성한 하나의 상징적인 내적 공간 즉, 閨房은 바로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순종하는 공간이며, 외부세계와 소통하는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단절되고 소외된 공간이다.

너무 웃긴다. 중국인은 밥 먹고 하는 일이 결혼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오빠가 귀국한 후로 식사에 초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중 어느 날 黃씨네가 —— 바로 石坊橋의 黃씨네 —— 今雨軒에서 식사하자고 초대를 해서 나도 갔었거든. 그댁 둘째 아가씨가 한 쪽 다리를 절룩거리는데 걸 언니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야. 앉아 있으면 잘 모르는데, 걸으면 그제야 알 수 있어. 공원에서 걸을 때 오르락내리락 하고, 다리를 건너거나 문을 열어야 해서, 오빠가 언니를 부축해주고 손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오빠가 또 대신해서 들고 있었어. 이걸 별 문제가 되지 않아, 黃씨댁은 갑자기 사람을 시켜서 오빠에게 구혼하라는 의사를 표시했어. ……그 뒤에 黃씨댁 사람들은 모두 그 집 언니에게 관심이 없으면서 왜 그녀를 부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세심하려고 애썼냐고 하는 거야. 오빠는 그 사실을 알고 한편으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우스워 했어. 남자가 여자를 배려해주는 것은 외국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습관이라고 오빠가 말했어. 芳影 언니 웃긴지 안 웃긴지 말해봐. ……芳影은 이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느껴졌고 입가에는 쓸쓸한 미소만 살짝 지어보이며, 천천히 말한다. ‘외국……습관……’<sup>24)</sup>

凌叔華는 작품에서 남녀의 자유연애로 인한 억압적인 사회구조에 주목하기보다는 서구문화에 대한 낯설음으로 인한 전통적인 여성들의 독특한 심리적 체험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평범한 여성의 일상적 소재를 통하여 작가가 이야

23) 가스통 바슐라르, 위의 책, 254쪽 참조.

24) 好笑的很，中國人吃飽了飯便想到婚嫁的事。自從我哥哥回國後就有許多人請茶請飯，有一天黃家 —— 就是，石坊橋的黃家 —— 請哥哥到來今雨軒吃飯，我也去了。他們的二小姐，跛了一只腳的，你大約亦看見過，坐着倒看不出來，走起來，才覺出。她在園里走動時上山下山，過橋或是開門，我哥哥就攙扶她，她手里拿的東西，哥哥也替她拿着。這不打緊，黃家忽然托人示意，叫哥哥去求婚。……過後黃家的人都說既然他不屬意他家的小姐，爲什麼攙扶她，服侍她，那樣賣小心呢？我哥哥知道了又是生氣，又是好笑，他說男子服侍女子，是外國最平常的規矩，芳影姐姐，你說好笑不好笑？影此時覺得說不出一種情緒，她嘴邊微微顯露出一弧冷冷的笑容，她遲遲的說：“外國……規矩……” <茶會> (《現代評論》1卷20期)。

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閨房에 단절되어 형성되어진 이들의 낡은 문화심리이다. 이러한 인물들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태도에서 형성된 자기만의 세계는 결국 소외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에 따르면, 소외란 스스로를 따돌림당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경험형식을 뜻한다.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져나가게 됐다고 말할 수 있다. 소외된 인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듯이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떨어져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각과 양식을 갖고 사물이 경험되어지는 바로 그대로 경험하지만, 자기 자신과 외부세계를 생산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sup>25)</sup> 이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그 자신을 이질적인 존재로서 경험하는 한 유형으로 규정<sup>26)</sup>하는 것인데, 소외는 어떤 사태를 의미하기보다는 그것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결과, 즉 의식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심리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비밀스런 자기세계는 외부세계와의 건전한 고 참다운 유대로 표출되지 못하고 자신만의 은폐된 환상(fantasy)<sup>27)</sup>으로 나타난다. 환상은 우리가 현실세계에서 향락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설명은 제공되지 않으면서 어떤 관점을 전제하는 일그러진 상이다. 현실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삶의 결여된 부분이나 불완전한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은폐해준다.<sup>28)</sup>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내밀한 체험이나 사회화되지 못한 개인적 경험은 이해와 소통의 범주를 넘어설 때에 환상의 형식으로 소외되고 배제된다.<sup>29)</sup> 이는 현실에서 결코 공유할 수 없는

25) 에리히 프롬, 김병익 역, 《건전한 사회》, 범우사, 1994, 124쪽.

26) 김영수, 《인간 소외에 대한 연구》, 수원카톨릭대학 석사학위 논문, 1994, 29쪽 참조.

27) 환상은 백일몽의 일종으로 현실에서 억압된 욕망을 가상 세계를 통해 충족시키는 도구는 되지만, 그 외에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제공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환상은 적극적인 현실적 대응력을 상실하게 하고 불가능한 꿈에 도피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적응시키는 방어기제로 활용된다. 즉, 환상은 일종의 현실에 대한 심리적 대응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119쪽 참조.

28) 토니 마이어스, 박정수 역, 《누가 슬라보에 지적을 미워하는가》, 앨피, 2005, 203쪽 참조.

29) 최기숙, 앞의 책, 92쪽 참조.

개인적 체험을 소통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결국 욕구와 요구가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결여의 체험인 것이다.

그녀는 淑貞의 오빠가 각 방면에서 자신에 대해 마음을 쓴다고 느낀다. 차를 타면 그녀를 부축하여 올라가게 하고, 차에서 내리면 또 그녀를 붙잡아 내려오게 한다. 돌 위를 걷거나 다리를 건널 때에도 그는 먼저 앞에서 그녀가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날까 걱정하며 그녀를 붙잡아 준다. 게다가 그녀의 가방과 외투를 들고 바깥 뒤따른다. 여중도 그의 행동보다 조심스럽고 신중하지는 못할 것이다.<sup>30)</sup>

芳影의 사랑<sup>31)</sup>에 대한 내적 확신은 결국 사회의 지배적 이념과 질서에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개인적 경험에 불과하다. 이러한 개인 체험의 세계는 芳影 자신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주관적 질서에 따르기 때문에 환상적 세계로 표현되는 것이다. 즉, 주체의 상실감과 결여를 상상적으로 메우려는 '불가능한 시선'이며, 주체의 상실, 즉 사라짐(aphanisis)을 막기 위해 주체를 대상에 고정시킴으로써 자신을 유지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모호한' 욕망의 대상으로 변형시킨 것이기도 하다.<sup>32)</sup> 이러한 환상은 芳影을 사회적으로 더욱 소외시키는 적극적인 내적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러한 소통에 대한 불가능은 芳影의 사회적 소외나 억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외된 세계로부터 탈피하여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배제되어 버리고 자기만의 세계로 도피하고자 하는 심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芳影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난처함은 이미 예정되어진 결과이며, 그 비극성은 일상에서 환상의 세계를 그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30) 她覺得淑貞的哥哥處處都對她用心，上車又扶她上去，下車又攙她下來，走山石或過橋的時候，他都要上前攙扶她，唯恐她遇了不測的危險：且提了她的手袋及大衣緊緊相隨，丫頭使僕沒有他那樣謹慎小心。〈茶會〉(《現代評論》1卷20期)。

31) 인간이 자기와 세계를 결합시키려는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통합감과 개별감을 가지려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열정이 단 하나 있다. 이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자기 자신의 완성성과 격리감을 유지하는 조건 아래' 자기 이외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과 '결합하는' 것이다. 사랑은 공감하고 공유하는 경험이며 자신의 내적 행위의 충분한 발현을 허용하는 영적(靈的) 교섭인 것이다. 사랑의 경험은 환상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에리히 프롬, 앞의 책, 38-39쪽.

32) 최기숙, 앞의 책, 120쪽 참조.

꽃들이 햇빛에 스며들어 특히 신선함을 감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인이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뺨이 달아오르고, 심장도 두근거리어서, 재빨리 방으로 들어오고 나서야 편지를 뜯었는데, 초대장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張梅先양과 王斌군이 이번 달 30일 오후 2시에 北京호텔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오니,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초대장은 마치 큰 항아리 속의 차가운 물을 그녀의 머리 위에서부터 부어내리는 것 같았다. 처음엔 정신이 혼미하고 얼음처럼 차갑더니, 나중에는 다시 약간 뜨거워졌고, 오래지 않아 여전히 한기를 느꼈다. 그녀는 한동안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초대장은 바닥에 떨어뜨려, 주위 다시 보니 조금 전과 다름없었다. 그것을 뿌리치고 의자에 힘겹게 앉으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sup>33)</sup>

특히 당시는 인간의 가장 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性'과 '사랑'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이 공공의 장에서 담론화된 시기였으며, 자유연애는 신성하며 지고의 가치를 지닌다는 관념은 가장 강한 호소력을 지닌 것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로 인하여 <茶會>의 芳影은 <繡枕>의 大小姐보다는 좀더 발전된 양상을 드러내지만, 이미 잠재의식 속에 녹아져 있는 봉건적 윤리도덕 관념과 그 속에서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주관적 체험은 심리적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다.

凌叔華는 이처럼 사회성을 확보하지 못한 芳影의 고유한 주관적 느낌과 체험을 통하여 외부세계와 소통하지 못하고, 역시 그 자신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소통 가능성을 상실하고 자기만의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여 안주한 인간의 내적 체험이나 확신의 세계는 그 자신을 외부세계로부터 철저히 소외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해방, 남

33) 那些花浸在日光里特別新鮮，她正在贊嘆，忽見僕人遞給她一信，……她腮上立刻熱起來，心里亦跳，急走到內房，才把信拆開，一看仍是一個請帖：張梅先女士與王斌先生訂于本月三十日下午二時在北京飯店行結婚禮，恭請，光臨。這請帖好似一大缸冷水，直從她頭上傾潑下來。起先昏憊冰冷的，後來又有些發暖，不多會兒仍舊發涼，她一陣一陣的說不出的難受。請帖已經掉在地上，她撿起再看，依舊和方才的一樣。隨着甩了它，往大椅里很重的坐下，眼淚不禁滴滴點點的流下來。<茶會>(<<現代評論>> 1卷20期)。

녀평등, 개성의 추구, 자아의 발견 등의 담론을 넘어서서 시대의 신조류가 가져다주는 사회변동과 여성 운명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며, 나날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역사 속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리얼한 생존풍경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團鴨-불안

여성에게 주어진 억압과 침묵의 공간에서 인간적인 욕망을 체념하고 미덕으로 여겨지는 인내와 희생의 삶을 살지라도 무의식적으로 일깨워지는 욕망에 대한 갈구는 끊임없이 여성들의 삶을 불안<sup>34)</sup>하게 만든다. 또한 여성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며 가부장제 사회가 만들어 놓은 뒷에서 흘러서기를 감행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나는 무엇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정체성<sup>35)</sup>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부딪히게 된다. <中秋晚>의 敬仁太太와 같이 부부관계가 친밀한 정서적 교감에 의해 결합되지 않은 봉건적인 혼인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어둡고 깊은 숲속에 방치되어 두려움, 전율, 우울함이 그녀를 휘감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누군가 다가와서 자신을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 나오게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가족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 당연히 첫 번째 사람 敬仁이 잡아주기만 하면 — 대부분의 공

34)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면서 무한을 꿈꾸고 자유로운 동시에 필연성에 얽매어 있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니체에 따르면 불안은 인간의 조건인 자유와 유한성의 불가피한 부산물이다. 자유와 유한성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존재하는 인간의 불가피한 정신적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불안은 인간 실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간의 존재론적 특징이며 인간 실존의 주변에 대한 우려인 공포와는 달리 인간 실존의 근거 내지 중심에 대한 우려이다. 민혜숙, 《한국문학 속에 내재된 불안의 서사》, 예림기획, 2003, 27쪽.

35) 정체성이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변화 안에 내재해 있는 동일한 전체 패턴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모든 변화 안에 스며들어 있는 독특한 양식으로서의 지속적인 '나'가 있다. 김열규 외,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223쪽.

포와 걱정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sup>36)</sup>

이러한 불안은 가부장제 사회 현실의 억압으로부터 발생하기도 하고 존재이유에 대한 결핍과 그에 따른 존재감의 상실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끊임없는 흔들림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돌파구를 찾게 되고 무엇에든지 자신을 기대고자 한다. <中秋晚>에서 敬仁太太가 맹신하는 團鴨은 부부가 단란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는 미신이 며, 이러한 진부한 미신이 지니는 속성, 즉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敬仁太太에게는 불안의 심리적 요소로 전이된 상징물 그 자체이다.

團鴨을 먹으면, 일년내내 헤어지지 않는다고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 그녀는 무척이나 심란하기도 했지만, 敬仁이 지금 자리를 떠나는 것을 정말 원치 않았다. 왜냐하면 團鴨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째서 아직도 團鴨을 가져오지 않는 거야? 주인어른 빨리 들어야 하는데. 그녀는 이때 약간 초조해지면서, 그가 먹지 못하고 그냥 갈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몹시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이 느끼면서도 團鴨을 먹지 않으면 정말로 불길한 조짐이 될까봐 또한 두려웠다.<sup>37)</sup>

敬仁太太의 혼인의 비극은 중추절에 團鴨을 먹지 않으면 단란한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미신사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것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병이 위중한 수양누나를 보러 가려는 敬仁에게 부득이하게 團鴨을 먹고 갈 것을 강요하면서, 결과적으로 그에게 더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정말 누나에게 미안해. ....가엾게도 결혼한 지 1년 뒤에 과부가 되어 수절을 하

36) 她好像置身在迷暗的深林中, 恐怖, 寒栗, 憂愁纏住了她, 她只盼望有個人來看爲她, 用手領她出來. 她想只要能默默拉着親人的手 —— 自然頭一個是敬仁 —— 他就可以去了大半的恐怖憂愁了. <中秋晚> (<晨報副刊> 10月1日).

37) 我娘告訴我, 吃過了團鴨, 一年不會分離. ....太太也覺不好過, 但是極不願敬仁此時就走, 因爲團鴨還沒有上. 怎麼還不端上團鴨來? 老爺快吃完了. 太太此時有些發急, 她怕他不能吃到便走. 她覺得十分委屈, 又怕這不吃團鴨, 真會成了聯兆. <中秋晚> (<晨報副刊> 10月1日).

고, 자식도 없으니. 임종할 때는 한 명의 남동생조차 나타나지 않았으니. ……모두 당신이 그 밥을 먹으라고 강요했기 때문이야. 누나가 숨을 거둘 때, 또 사람을 불러 나를 찾았다고 張씨 아주머님이 말씀해 주셨어. 하, 나는 정말 미안해. 太太는 원래 명절에 죽은 사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가장 기피한다. 敬仁이 끊임없이 자신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매우 견딜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꼭 참으며 멋쩍게 말을 건넨다. 나만 원망하지 마요. 명절에 죽은 사람 적게 보는 건 좋은 거잖아요.<sup>38)</sup>

團鴨에 대한 그녀의 병리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집착은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초래하는 억압이 사회의 합리적인 소통과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심리를 반영한 광기와 같은 것이다. 또한 자신의 욕망과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갈등에 심리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초래한 것이며, 이는 자의로 멈출 수 없는 특징을 지니는 강박행동(compulsion)<sup>39)</sup>으로 결국에는 스스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 이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전통의 삶을 살아야 하는 敬仁太太가 자신의 혼인생활을 지키지 못하면 가정 내의 아내의 위치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 해소의 의미가 농후하다. 이는 바흐친(Mikhail Bakhtin, 1895-1975)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사고

38) 眞對她不住 ……可憐她嫁了一年就守寡，又沒有一男半女。臨死時連一個乾弟弟都不見着。……都是你強我吃那碗飯，張媽告訴我她咽氣時，還喊人找我呢。咳，我真對她不住。太太本來最忌諱大節日說死人，聽敬仁連連埋怨自己，心里未免不耐煩，只得勉強忍住搭訕道。別只埋怨我吧，大節下少見一個死人好多着呢。〈中秋晚〉(《晨報副刊》10月1日)。

39) 강박증적 행동 혹은 강박행동(compulsion)은 불안장애의 전형적인 증후들 중의 하나인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강박행동은 무의미하고 틀에 박힌 행위를 반복해서 하려는 충동이나 자극을 말한다. 강박행동에 빠진 사람은 그러한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르는 다른 어떤 상황 사이에 아무런 논리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어떤 상황을 유발시키거나 방지하려는 수단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 강박적 행동들은 대부분 계속해서 손을 씻거나 셈을 하거나 난로 스위치 같은 것을 꺾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거나, 물건을 만지작거리고 복잡한 말을 반복하는 등 매우 단순한 것들이다. 그러나 때로는 치밀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동들일 수도 있다. 이처럼 강박행동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행동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대개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극심한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어 그 행동을 해야만 비로소 불안에서 벗어난다. 만약 그와 같은 고통에 싸인 사람이 강제적으로 외부의 힘 때문에 강박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네이트 백과사전 참조).

등은 주관적이고 주체에 의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언어자 자신이 속해있는 계급의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다.<sup>40)</sup>

敬仁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부부관계의 단절을 촉발시키는 원인을 며느리로서의 역할에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도덕성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제 가족의 모습이며, 전통적인 윤리규범의 특징이다. 여기에서 凌叔華는 남성들에 의해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갈등과 그에 대한 두려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차이가 사회적 차별로 이미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삼 년째 되던 해, 敬仁의 어머니가 오서서는 敬仁이 매춘에만 몰두하고, 선조가 남긴 가계도 전당 잡히었고,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지물상은 아직 전당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미 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힌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말 씀하시기를 당신의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며느리가 어리석어 아들을 잘 대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밖에 나가 가산을 탕진하고 하루 종일 며느리에게 얼굴조차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신다. 세 번째 맞이한 중추절 밤 그녀는 홀로 주방에 숨어 아궁이 속 불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다.<sup>41)</sup>

敬仁太太의 불안은 여성 자신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정체성의 부재를 반영한다. 또한 자신의 존재를 지탱해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團鴨이라는 의지처를 상실한 것과도 관련된다. 우연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소한 불길한 징조들이 자신의 운명적인 불행을 암시하는 악순환으로 인식되면서 그녀의 불안은 더욱 심화된다. 이와 같이 그녀에게 주요한 삶의 요소가 되어버린 團鴨은 이런 의미에서 나를 떠받치고 있는 기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익명성으로, 무규정성으로,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력으로 남아 있게 한다.<sup>42)</sup>

40) 민혜숙, 앞의 책, 55쪽 참조.

41) 第三年敬仁의母親來。看見敬仁專好冶游，一個祖遺的鋪子都典走了，只剩下一間紙行，雖不會典，已經把契紙押了給人。她說自己兒子不聽，只得埋怨婦女笨，不能服侍兒子，所以他才出外游散了家財，所以一天到晚也不拿好臉給媳婦看。第三個中秋晚上，太太獨自躲到廚房望着爐火擦淚，不敢哭出聲來。〈中秋晚〉(《晨報副刊》10月1日)。

……그 어느 누가 생각했겠어. ……근데 엄마, 고통 받는 것은 모두 내 운명에 정해져 있는 걸 거야! 그녀는 콧물을 닦으며, 목메어 울면서 말한다.: 내가 결혼한 후 첫 중추절 밤에 그와 말다툼을 하고서는 그가 團鴨 한 입을 먹었는데, 도로 토해버렸어. 나는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후에 또 밤에 부딪혀서 제단의 화병을 깨뜨려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 ……이것이 모두 하늘의 뜻이라면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면 어느 누가 피할 수 있겠어!<sup>43)</sup>

가족이라는 제도와 관습 속에서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이 초래하는 인간 왜곡현상은 자신의 삶 자체를 위협하지만, 敬仁太太는 이를 모두 인내하고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여성의 문제도 여성 본연의 숙명적 비극으로 간주한다. 결국 그녀는 삶의 진지성, 자신의 본성과는 거리가 먼 자기기만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자신의 삶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뿐이다.

## 5. 나오며

凌叔華의 단편소설을 통해 개인적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급변하는 시대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극적이고 체념적이고 운명적인 여성인물들의 다양한 심리적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작가는 여성의 비극적 운명을 그리고 있지만 절망적인 신음이나 고통에 대한 울부짖음은 표현하지 않는다. 단지 흔히 보이는 일, 눈에 익숙한 사람들,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갈등을 침착하게 관찰하여 인물 내면의 비극 또는 마음속 전쟁을 보여준다.<sup>44)</sup> 작가만의 이러한 독

42)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131쪽 참조.

43) ……誰也沒想到 ……可是, 娘啊, 都是我的命中注定受罪吧! 她擤擤鼻涕, 咽哽道: 我出嫁後的頭一年八月節晚上就同他鬧氣, 他吃了一口團鴨, 還吐了出來, 我便十分不高興後來又一脚碰碎了一個供過神的花瓶, 我更知道不好了。……這都是天意, 天降災禍, 誰躲得過! <中秋晚>(《晨報副刊》10月1日)。

44) 使習見的事, 習見的人, 無時無地不發生的糾紛, 凝靜的觀察, 顯示人物心靈的悲劇或心靈的戰爭。沈從文, <論中國現代創作小說>, 《文藝月刊》2卷4號, 1931年4月30日。

특한 여성의 발견과 재현은 5·4시기 여성해방 과정의 중요성과 그 어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 자아의식, 자아가치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凌叔華가 작품에서 그려내고 있는 여성의 복잡하고도 은밀한 심리적 체험으로 인한 몰입, 환상, 집착 등은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정을 되찾음으로써 현실의 고통스런 삶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일련의 방어기제인 심리적 현실적응행동이다. 또한 그것이 바람직하고 창조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에게는 위안이 되고 그 존재를 뒷받침해주는 나름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적응의 노력들은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갈등의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해소의 한 방법에 불과하다.

하지만 작가는 이러한 인물들이 보여주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심리적 적응행동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심리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양식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즉, 삶이 그 내용을 상실할 때, 모든 것이 무의미할 때, 그러면서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sup>45)</sup>을 깨닫게 되면서 나타나는 생존을 위한 자생적인 반응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내면적인 소망과 갈등을 담고 있으며, 그러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 표출된다는 사실에서 보면, 凌叔華는 인간의 가장 심층적인 심리와 행동의 상관관계 측면에서 상상의 공간을 열어주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 參考文獻 >

凌叔華, <繡枕>, 《現代評論》 1925年1卷15期.

凌叔華, <茶會>, 《現代評論》 1925年1卷20期.

凌叔華, <中秋晚>, 《晨報副刊》 1925年10月1日.

沈從文, <論中國現代創作小說>, 《文藝月刊》 2卷4號, 1931年4月30日.

45) 레비나스, 앞의 책, 122-123쪽 참조.

- 鄭斯揚, <凌叔華小說女性人物描寫新論>, 《欽州學院學報》, 2009年第24卷第一期.
- 馮曉青, <凌叔華小說對女性心理的藝術觀照>, 《集美大學學報》, 2008年第11卷3期.
- 單 婕, <女性角色的符號化>, 《安徽文學》, 2008年第9期.
- 常 淋, 《中國女性文學話語流變》, 人民出版社, 2007.
- 김정진, 《상징으로 소설 읽기》, 박이정, 2002.
- 김열규 외,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 민혜숙, 《한국문학 속에 내재된 서사의 불안》, 예림기획, 2003.
-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이유, 2006.
- 이훈구 외, 《인간 행동의 이해》, 범지사, 2006.
- 전경갑·오창호, 《문화적 인간 인간적 문화》, 푸른사상, 2003.
-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 가스통 바슐라르, 광광수 역,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 시몬 드 보브와르, 조홍식 역, 《제2의 성》, 을유문화사, 1997.
- 에릭 프롬, 김병태 역, 《건전한 사회》, 범우사, 1991.
- 악셀호네트, 강병호 역, 《物化: 認定の 이론적 탐구》, 나남출판, 2006.
- 조세핀 노노번, 김익두·이월영 역, 《페미니즘 이론》, 문예출판사, 1997.
- 토니 마이어스, 박정수 역, 《누가 슬라보예 지젝을 미워하는가》, 엘피, 2005.
- 김은희, <凌叔華小說 研究>, 《中國現代文學》 11호, 1998.
- 김영수, 《인간 소외에 대한 연구》, 수원카톨릭대학 석사학위 논문, 1994.

### < 中文提要 >

凌叔華是五四時期獨具風格的一位女作家，與當時的其他女性作家不同，塑造了一群被時代遺忘、與外界隔絕的舊式女性。作品<繡枕>的大小姐、<茶會>的芳影、<中秋晚>的敬仁太太生活于千百年來為女性規定的人生軌迹中，迅速發展的外面世界對她們沒有絲毫衝擊與影響。她對這些女主人公的命運有同情、有無奈也有隱隱的批判，而且很清楚地意識到了舊女性自身的心理世界。

凌叔華以其獨特的藝術風格審視和品味了發生在女性世界里的苦悶與哀愁，特別是用象徵的事物暗示了那個時代女性的心理潛流和情感。在父權社會的壓迫下，作品中人物都因獨特的心理體驗而顯示出沒入、幻想、執著的現實適應行爲。雖然這種行爲不是合理的、現實的行

爲，但是這還意味着我們人間的普遍存在方式。因此，通過這種心理刻畫也向我們揭示了那個時代背景下大多數女性的共同悲劇和現代女性生存圖景。

關鍵詞：凌叔華、繡枕、茶會、中秋晚、象征、女性心理、強迫行爲、不安、疏失、物化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0.6.29	2010.7.30	2010.8.7	2010.8.10	2010.8.31